



구약성서로 철학하기

The Philosophy of Hebrew Scripture

요람 하조니 지음 | 도서출판 홍성사

이 책의 저자인 요람 하조니는 유대인 학자(정치철학 박사)이다. 그는 이 책에서 구약 성경을 계시보다는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순종보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반항해야 하며 그런 이유 있는 반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과히 도발적이다.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지 못한 평신도의 입장에서 그의 주장은 낯설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의 주장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이성적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풍성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한 서평을 통해 이 책의 주요 내용과 저자의 주장에 대한 나뉠의 생각을 월드뷰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서론을 시작하며 저자는 구약을 계시로만 보는 것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구약을 계시로 볼 것인지 이성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구약 성서가 이런 이분법이 없던 시기에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은 기독교 계시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신학자들과 이성의 우월을 드러내고자 하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생겼다는 것이

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저자는 파르메니데스나 엠페도클레스 등의 철학 저자들이 여신에 의존한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성의 산물로 해석하듯이, 구약 성경도 그 어떤 다른 철학서보다도 합리적인 논증과 철학을 제공한다 고 말한다. 이를 근거로 저자는 구약을 이성적 저서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인의 관점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당시에 계시와 이성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는 것은 큰 함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성경을 보는 방식을 계시적 관점이나 이성의 관점으로 양자택일할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바탕으로 하여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삶에 필요한 보편적인 담론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약성경의 구조와 저술 목적

저자는 '인간의 지성은 제한적이고, 인간의 앎은 부분적'일 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도 제한된 이해와 관점을 가졌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씩,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 구약성경의 구조라는 것이

구약성경이 만들어진 당시,
계시와 이성에 구분 없던 그 시대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본다면?

다. 그러므로 성경이 품고 있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의 나눔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질문함의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저술 의도라는 것이다. 저자는 구약이 종교라는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이 읽고 철학적 논의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구약에서 철학적 논의와 교훈을 얻기 위해 구약의 진실성에 대하여 다소 느슨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구약의 역사서가 말하는 진실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구약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바탕 아래서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런 '질문함의 전통'이 확산되길 바란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질문함의 신앙은 목회자들에게 귀찮은 일일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맹목적인 신앙인의 자세보다 질문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세상적 세계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독교 지성을 개발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윤리학, 정치철학, 진리 등에 관한 사례 연구를 든다. 이 중 일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치기 윤리학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말하는 윤리학을 '양치기 윤리학'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설명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롭다. 그의 요지는 이렇다. 가인은 땅을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고, 아벨은 하나님이 양치는 일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도 사람과 하나님의 분노를 감수하면서 자기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확보하려고 지혜롭고 용기 있게 반항의 길을 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은 선을 위해 노력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시도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다. 참으로 흥미로운 주장이 아닌가? 아벨,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 받은 반항아들이라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소돔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용기 있는 반항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대화의 방식을 통해 소돔에 의인이 없음을 강조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예로 든 다른 이야기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러티브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나타난 정치철학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스라엘에 한정된 관점을 넘어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즉, 성경의 내러티브가 제시하는 정치형태는 바벨탑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 보여 준 전체적인 통치와 사사기에서 보여 주는 무정부 상태 사이의 중간에 해당하는 '제한적 국가권

진리를 파악하는 우리 자신이
부패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성경이 가지는 의미를
왜곡하게 되기에
지속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거짓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다.

력'이라는 것이다. 정치철학 전공자로서 성경이 제시하는 정치형태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가장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저자와 같이 성경을 통해 각자의 삶의 영역에 필요한 원리를 찾아내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길 소망해 본다. 바로 이것이 저자가 주장하는 이성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그 길은 각자의 영역에서 기독교 지성을 개발하는 가장 옳은 길이 될 것이다.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자는 진리를 파악하는 우리 자신이 부패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성경이 가지는 의미를 왜곡하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성경이나 예언에 대한 무반성적인 수용이나 맹목적 순종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지속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거짓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며 참 지식을 얻을 유일한 희망은 삶의 경험에서 온다고 말한다. 자신의 사고가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한된 지성을 가진 인간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부패한 지성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개인의 주체적인 진리추구를 통해 얻는 진리는 여전히 부분적인 진리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면 온전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구약 성경에서 이성과 믿음의 관계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이성과 신앙이 관계가 없음을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저자는 테르툴리아누스가 기독교인의 믿음과 철학자의 진리 추구는 서로 화해될 수 없고, 상호 적대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테르툴리아누스 자신도 기독교인이 믿어야 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어리석으며 반이성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믿음은 합리적인 이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세상적 눈으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 물론 복음 외에는 어떤 지적 탐구도 원치 않는다는 기독교인의 지식 추구에 대한 테르툴리아누스의 극단적 주장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 믿음에 근거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성은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다. 저자는 구약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 없이 자신의 이성과 판단력을 활용해 행동한 개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인간의 자유로운 탐구와 그런 탐구에 근거한 행동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함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율법과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개인의 이성과 판단력을 통해 행동하였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저자가 말하듯이 구약의 내용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 전이라도 구전을 통해 믿음이 전승되었음이 분명하다. 저자는 십브라와 브아의 행동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설명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히 11:23)”라고 말하고 있으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다(출1:20-21). 즉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다.

결론

저자는 이 책에서 구약 성경을 계시적 작품보다 이성적 작품으로 읽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그의 주장은 기독교인에게 다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인간 저자의 손을 통해 저술된 성경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5:39)”는 말씀을 통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요람 하조니의 글

은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구약의 불충분성과 한계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후 3:12-18). 믿음과 이성은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바라볼 때 믿음의 열정은 강조하지만 이성적인 신앙의 측면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된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넘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각자에서 소명으로 주신 영역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독교지성을 개발하여야 한다. 요람 하조니의 <구약성서로 철학하기>를 통해 한국의 기독교에 성경과 삶에 대한 질문과 대화가 활성화되고, 각 삶의 영역에 기독교 지성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글 | 김지원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교수이다. 현재 안식년을 맞아 미국 LA에서 두 아이를 돌보며 틈틈이 독서와 여행을 하며 심을 누리고 있다.